

서울의 인구고령화와 고령자 고용의 지역적 특성*

박삼옥** · 진종현*** · 구양미****

The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 Ageing and the Employment of Aged Workers of Seoul*

Sam Ock Park** · Jong Heon Jin*** · Yangmi Koo****

요약 : 본 논문은 서울의 인구고령화 현상을 살펴보고 이들 고령자 취업의 지역적 특성을 고찰하는 연구이다. 서울시 구별 자료를 토대로 노령화지수와 장수도를 산출하여 시·공간적 변화와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고령자취업알선센터의 자료를 통해 구인처와 구직자, 취업자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서울의 인구고령화는 다른 지역에 비해 최근 들어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서울 내에서 각 구별로 지역적 차별화를 보였다. 고령자의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단순노무직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고용의 지역적 차별화로 인해,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고령자를 위한 고용기회가 충분하게 주어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구인처와 구직자, 취업자 간에는 지리적 부조응(geographical mismatch)이 나타났는데, 이는 고령구직자가 자신의 주거지 주위에서 적절한 일자리를 얻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며, 고령자의 낮은 이동성을 고려할 때 정책적·제도적 지원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주요어 : 인구고령화, 고령자 고용, 지리적 부조응

Abstract :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 ageing and the employment of aged workers in Seoul. Population indexes such as aged/child ratio and longevity degree are analyzed to identify the time-spatial changes and differentiation of population ageing by Gu. Job offerers, job seekers and employees related to the aged workers are also analyzed using data from Center of Job Placement for the Aged in Seoul. The results indicate that population ageing of Seoul has progressed faster than other regions in recent years. In addition, regional differences in tendency of population ageing is obvious even within Seoul. The percentage of unskilled laborer is much higher in Seoul compared with other regions. There is geographical differentiation in employment of aged workers among regions within Seoul. The employment opportunity of the aged is high in core economic areas of Seoul, while low in the outer residential area. This shows geographical mismatch between job offerers and seekers, which means that it is difficult for aged workers to get the jobs near to their residence. Accordingly, governmental support and intervention is needed considering their lower mobility.

Key Words : population ageing, employment of aged workers, geographical mismatch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KRF-2005-079-BS0149).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교수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parkso@snu.ac.kr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Research Fellow, Korea Environment Institute), jhjin@kei.re.kr

****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Research Fellow, The Institute for Korean Reg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yangmi@snu.ac.kr

1. 서론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폴 윌리스(2001)는 『증가하는 고령인구 다시 그리는 경제지도』에서 고령화를 새로운 천년을 상징하는 거대한 변화로 인식했다. 고령화는 인구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라는 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 현상은 출산을 저하와 쌍을 이루는 현상으로 ‘저출산·고령화’의 통합적 관점에서 보아야 그 사회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고령화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사회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보다 미시적인 차원에서 고령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존의 사회·정치·문화적 관습과 제도, 그리고 조직을 바꾸어 나갈 것이다. 정치에서의 ‘시니어 파워’는 미국·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나타나, 노인계층이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사회계층임을 보여준다(김현진, 2004). 또한 구매력 있는 고령자계층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고령친화산업의 성장 등 산업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고령층의 양적인 확대와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고령자 인구집단은 머지않은 장래에 구매력이 큰 사회계층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에 진입하였고, 고령화의 속도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다. 이미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20~30년 후에 심각한 사회위기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고령화와 관련하여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관련된 각 학문분야에서 고령사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연구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한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우리나라 사회 전체의 고령화를 다루고 있어서, 정작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 및 지역사회와 인구고령화가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인구고령화는 우리 생활양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동시에, 그러한 변화를 일상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도시 혹은 지역공동체의 구체적인 변화를 수반한다. 따라서 고령화의 사회적 변화에 대하여 지리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박삼옥 등, 2005a; 2005b; 2007; 송경언 등, 2006; 정은진 등, 2006).

본 논문은 서울지역의 고령자 취업의 지역적 특성과 과정에 대한 연구이다. 고령화사회의 도래로 ‘일하는 노인들’이 늘어났다는 것은 평균수명 연장과 고령자의 건강상태 및 신체조건 향상으로 일상적 노동이 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수 고령인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득을 얻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아직 고령자가 다양한 부문에서 적절한 일자리를 구하고,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고령자들이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종에서, 훨씬 적은 수입을 감수하면서 힘들게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자 취업의 문제는 도시지역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며, 그 중에서도 서울은 양적·질적인 면에서 고령자 고용이 가장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지역 고령화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를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서울의 인구고령화는 어떤 특성을 나타내면서 진행되어 왔는가? 둘째, 서울의 고령자고용은 어떤 부문에서 얼마나 증가해 왔으며, 취업구조의 전체적인 양상은 어떠한가? 셋째, 서울에서 고령구직자에게 제공되는 일자리들이 얼마나 고령자들의 요구나 조건에 잘 부합되고 있는가? 넷째, 서울의 인구고령화 현상 및 고령자고용의 특성은 서울 내에서 지역별로 어떻게 차별화되었는가?

2. 고령자 취업 및 고용 관련 연구동향

고령자 취업 및 고용에 대한 기존연구는 대체로 고령자고용에 대한 실태분석 및 정책적 제안에 대한 연구,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서 고령자고용문제를 노

인소득보장의 차원에서 접근 하는 연구, 고령자고용을 노인인력활용 및 인적자원개발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연구 등의 몇 가지 흐름들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는 기존의 관련문헌을 고령자 고용의 현황 및 특성, 고령자 고용(촉진)정책, 도시지역 고령자고용의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간략히 검토하고자 한다.

1) 고령자 고용의 현황 및 특성

우리나라 고령자 노동시장의 특징에 대해서 장지연(2004)은 ‘높은 경제활동참가와 낮은 고용의 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지광수(2005)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동의하는 바이기도 하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대체로 높은 수준이다(표 1). 2000년 기준 우리나라 50~64세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64.3%로, EU나 OECD 평균보다는 높고 일본이나 미국보다는 낮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남성만 본다면, 한국 남자의 노동시장참여율은 일본 다음으로 높다. 한편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보면, 한국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35.9%로 일본, 미국에 비해서도 훨씬 높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노동시장참여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는 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를 규명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들의 높은 노동시장참여율에 대한 관점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방하남 등(2004)은 고령자들의 높은 노동시장 참여율을 ‘고령화의 진행과 관련하여

가장 긍정적인 지표 중의 하나’로 간주한다. 서구사회 고령화의 가장 큰 문제가 고령자들의 낮은 노동시장참여율이며, 이는 고령층의 조기퇴직으로 인한 수급자의 증가와 보험료 기여자의 감소를 초래해 노후소득 보장 장치인 연금제도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의 비교적 높은 노동시장참여율은 경제활동인구 기반을 넓히고 부양비(dependency ratio)를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높은 노동시장 참여율의 상당부분은 농업부문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높는데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긍정적 관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농업부문의 비중은 고연령대에서 더 높게 나타나, 장지연(2004)에 따르면, 비농업부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대 후반에 이미 59.4%로 떨어지고 65세 이상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8.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수치는 앞서 보았던 미국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 18.5%와 유사하다. 즉, 농업부문을 제외한다면, 우리나라 고령자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특별히 높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는 농업부문의 비중이 적은 대도시지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60세(혹은 65세) 이상 고령취업자 중에서 전국적으로는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가 가장 많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고용에 대한 경제적 보상 및 안정성이 떨어지는 단순노무직 근로자가 가장 많다. 따라서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에 대해 선불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없다. 고령자의 높은 노동시장참여율은 고용의 낮은 질과 직결된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으며,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고령자고용에 있어서 고용의

표 1. 한국과 주요국의 연령그룹별 노동시장 참여율

(2000년 기준, 단위: %)

구분	남성			여성			전체		
	25~49세	50~64세	65~74세	25~49세	50~64세	65~74세	25~49세	50~64세	65~74세
한국	92.4	78.0	45.7	58.2	50.7	29.0	75.5	64.3	35.9
일본	97.2	89.1	42.0	66.1	56.8	21.0	81.8	72.6	30.7
EU	94.0	66.1	-	73.9	42.3	-	54.0	-	-
미국	92.4	75.6	23.5	77.3	61.0	14.4	84.7	68.0	18.5
OECD	93.7	72.8	-	69.0	48.4	-	81.3	60.3	-

자료: OECD, 2001, Labor Force Statistics; 방하남 등, 2004에서 재인용

질 저하는 평생고용제도가 사실상 무너졌기 때문인데,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근속기간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저하게 짧게 나타난다. 일본, 프랑스, 독일의 50~54세 남성은 평균 18~22년간 현 사용자와 일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11년에 불과하다 (장지연, 2005). 55세 이상의 고령근로자는 재취업한 직장에서 저임금·비정규직의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고령자의 이직·재취업은 연령차별(ageism)로 인해 고용의 질을 낮추고, 경제적 지위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김승용(2005)은 우리나라 노인인력의 취업현황 특징을 '농촌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주로 농촌 및 농림어업에 노인취업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상으로 나타나는 노인들의 경제활동참가율만으로는 노인취업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고령자의 취업은 자영업 부문과 농업부문 즉, 정년이 없는 직종에 주로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취업자 중에는 농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가 전체의 절반을 상회하고 있다. 또한 2003년 65세 이상 노인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를 10년 전(1993년)과 비교해 볼 때 임시직의 비율이 10% 높아져 노인취업의 불안정성이 강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우리나라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높고,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질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장지연, 2004, 103). 지광수(2003)의 연구에서도 고령자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으로, 근로취약계층의 규모가 매우 크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의 이유로 노후생활비의 부족을 언급하고 있으며, 부정적인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

왜 많은 고령자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자 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소득보장의 변화를 이해해야만 한다. 변재관(1999; 임춘식, 2003, 59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서울시의 65세 이상 노인 중 취업자는 8.7%에 달하는데, 취업 동기를 묻는 질문에 69%가 경제적 필요성이라고 답했다. 이전에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주로 자식들의 부양을 받으며 소일하였지만, 가족 및 친척에 의한 비공식적인 사적 이전(private transfer)의 사회적 관행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면서 고

령자들의 소득보장문제가 정부와 고령자 개인의 책임으로 변화해 왔다. 그러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체계가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으로부터 사적 이전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들은 과거와 달리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출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신동면·양기근, 2003, 112).

한편,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이전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50대 전·후반의 조기퇴직이 증가하고 새로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진 현실에 기인한다. 최근 10여년간 노동시장에서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는 중 고령자들(40~50대)의 조기퇴직은 고령자들이 좋지 않은 조건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만 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조기퇴직한 중고령자는 대체로 낮은 종사상 지위의 일자리에서 재취업하게 되거나 그마저도 쉽지 않은 조건에 놓이게 되므로 근로빈곤계층(working poor)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지광수, 2005, 1824).

2) 고령자 고용촉진정책

최근 몇 년 동안 고령화 및 고령자고용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고령자의 취업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형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신동면·양기근, 2003; 지광수, 2005; 노병일, 2004; 서균석, 2007). 이를 고령자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거시적 관점의 연구와 고령자 취업촉진을 위한 미시적 관점의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장지연(2004), 지광수(2005), 신동면·양기근(2003) 등의 연구는 거시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지광수(2005)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이유를 사회보장제도의 미흡과 중고령자의 조기퇴직 때문이라고 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정년연장과 연령차별금지법의 제정, 보조금지급을 통한 고용지원과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을 제안하고 있다. 장지연(2004) 또한 정책의 큰 방향으로 근로가능한 저소득층 노인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동시장합리화를 통해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동면·양

기근(2003)이 제시하는 정책대안은 보다 명확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데,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유연안정성(flexi-curity)를 주장한다. 이는 임시직·계약직·시간제직·일용직 등 다양화된 유연적 고용형태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동시에, 열등처우금지원칙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고령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노동시장의 수요측면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 고용촉진장려금지급, 정년연장 권장 등의 기존정책으로는 고령자고용에 따른 노동비용증가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극복하기 힘들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근로자채용에 있어서 연령제한을 철폐하는 등 차별금지를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정년제와 같은 기존의 경직적 제도로는 노동력의 유연적 활용에 대한 기업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이며, 실제 불안정한 취업상태에 놓여 있는 고령취업자를 보호하는 의미 또한 약하다는 것이다.

많은 연구들이 거시적 차원의 고령자 취업을 다루고 있는데 반해 임춘식(2003)은 미시적 차원에서 노인인력활용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각종 법·제도와 고령자취업알선을 위한 공공프로그램을 상세히 검토하고 있다. 거시적 관점의 연구들이 노동시장정책 차원에서 고령자취업문제에 접근하는데 반해 임춘식(2003)은 노인복지 및 소득보장의 관점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적자원개발의 관점에서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서균석, 2007; 강신욱 2005). 서균석(2007)은 거시적인 대안으로 연령차별 금지와 정년제 개선 등을 주장하여 앞서 다른 이들과 큰 차이가 없지만 직업훈련과 같은 고령자의 직무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또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특히 미시적 대안으로서 고령자를 위한 직종의 개발과 직무재설계를 통해 고령자 적합직종(우선고용직종)을 제도화하고, 고령자에게 적합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며, 임금피크제와 같은 고령취업자와 기업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적 임금체계를 수립할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 노병일(2004) 또한 노인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미시적 프로그램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는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 혹

은 재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노인근로자들이 자신들을 향하는 부정적 편견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능력부여(empowerment)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이와 동시에 고용주의 인식을 바꾸는 홍보프로그램 역시 중요하며, 나아가 사회복지기관이 아닌 일반 기업들이 일정한 사회복지서비스(노인의무고용 등)를 수행하도록 하는 맨데이트(mandate)를 제안한다. 또한 연령통합적 사회 및 시각이 노인취업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암시한다.

3) 도시 및 지역의 고령자고용

현재까지 대다수의 관련 연구들은 우리나라 전체의 노인고용상황에 대해 논하고 있으며, 도시 및 지역의 고령자취업 및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 예외적으로 이승협(2006)은 지역노동시장의 관점에서 고령자취업과 노인소득보장의 문제에 접근하였다. 그는 경기북부지역(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파주시, 연천군)의 232개 사업체의 367명 노동자를 대상으로 방문설문조사를 시행하여, 고령취업자고용결정의 요인, 고령자의 취업의사 및 이유, 고령인력 활용의 어려움 등을 조사하였다. 그는 고령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령자 고용안정정책을 위해서는 고령노동력이 판매 및 구매되는 지역노동시장의 연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그러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김승용(2005)은 급속한 도시화과정에서 도시지역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가 소홀하게 다루어졌음을 지적하면서 도시노인인구의 인력활용정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언급하고 있다.

고령자 취업 및 고용 관련 연구동향을 종합해 보면, 전국적 차원에서 고령자 취업 및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이루어졌지만 지역 차원에서의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도시 및 지역차원에서의 고령자취업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지역 고령자들의 취업구조에 대한 본 연구는 지역 차원에서 미시적으로 작동하는 고용구조를 이해하고 고령자고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응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은 통계자료 분석과 사례기업 인터뷰, 그리고 서울 중앙고령자취업센터로부터 구득한 원자료 분석이다.

첫째, 서울의 인구고령화 추이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1975년에서 2005년까지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조사 시점은 서울의 행정구역 변동이 대체로 마무리되어 현재와 유사하게 된 1975년 이후를 기준으로 하였다. 노령화지수와 장수도의 두 가지 지수를 산정하여, 인구고령화의 시계열적 변화를 확인하고 서울 내에서 지역적 차별화를 확인하였다. 여기에 더해 노인인구비율 자료를 가지고 서울의 각 구를 세 계층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고령자 취업의 양극화와 취업기회를 분석하기 위해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둘째, 구인처, 구직자, 취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서울 중앙고령자취업알선센터에서 구득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고령자취업알선센터는 서울시가 1992년부터 12개 민간기관(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어 현재 서울에 16개 고령자취업알선센터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취업알선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구인처, 구직행위를 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에 구인처, 구직자, 취업자에 대한 2005년 1년간의 원자료를 구득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고령자의 거주지, 학력, 직업 등 기본적인 정보와 구인업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한 원자료는 서울 중앙고령자취업알선센터를 통하여 일괄적으로 구득하였다. 그러나 고령자취업알선센터를 통한 구인·구직행위는 고령자들이 취업하게 되는 다양한 경로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자료가 고령자 취업의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전문·관리직의 경우 이러한 센터를 통하기 보다는 다른 구직경로를 활용하는 경향이 높고, 센터를 통한 고용은 단순노무직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서울 고령자의 구인·구직에 대해 이 자료만큼 상세하고 방대하게 축적된 자료는 많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 자료를 활용하였다.

셋째, 고령자 고용 관련 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강남구, 서초구와 종로구, 중구를 중심으로 노인고용기업을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K어린이집(교육직), S택배사, N치과기공소(배달직), S안전시스템(경비직) 등 6곳의 구인처에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4. 서울 인구고령화의 지역적 특성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도시 및 지역별로 고령화의 추이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5년 노령화지수를 살펴보면 서울은 43.9로 우리나라 전체의 노령화지수와 큰 차이 없지만, 경기/인천지역은 각각 33.8과 35.1로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표 2).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과 비교해보면, 1980년과 1990년에는 서울이 경기/인천지역에 비해 노령화지수가 낮았으나 2000년 이후에는 오히려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즉,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서울은 상대적으로 ‘젊은 도시’에서 ‘늙은 도시’로 급속히 변화하는 과정에 있었다. 서울과 달리 경기지역은 1980년 기준 전국평균과 거의 유사한 노령화지수를 보였으나, 2005년에는 전국평균 및 서울에 비해 훨씬 낮은 지수를 보이고 있다. 인천 또한 경기지역과 유사한 변화추이를 보여준다.

서울의 인구고령화현상이 지역적으로 어떻게 차별화되어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표 2. 수도권 지역 노령화지수의 변화 추이

구분	1980년	1990년	2000년	2005년
전국	11.2	20.0	34.3	48.6
서울	8.0	13.8	29.3	43.9
경기	11.5	16.2	24.2	33.8
인천	9.2	14.3	23.8	35.1

자료: 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표 3. 서울시 구별 노령화지수와 장수도 비교

1975년			2005년			
구	노령화지수	장수도	구	노령화지수	장수도	노인인구비율(%)
종로구	8.73	3.30	종로구	71.91	6.11	10.27
중구	7.59	2.85	중구	68.23	5.14	9.71
용산구	6.90	2.46	용산구	68.04	4.88	9.93
성동구	5.63	2.63	성동구	46.98	4.83	7.72
			광진구	37.19	5.08	6.14
동대문구	6.14	2.62	동대문구	56.41	4.53	8.50
			중랑구	41.68	5.16	7.11
성북구	6.99	2.94	성북구	53.09	4.75	8.54
도봉구	5.98	2.44	강북구	54.40	4.99	8.79
			도봉구	42.35	5.14	7.57
			노원구	37.27	5.40	7.18
서대문구	6.59	2.87	은평구	48.28	5.11	8.30
			서대문구	58.46	4.53	9.08
마포구	7.19	2.73	마포구	51.40	4.77	8.12
영등포구	5.23	2.20	양천구	30.56	5.32	5.94
			강서구	37.79	5.88	6.57
			구로구	38.55	5.05	6.53
			금천구	38.95	5.04	6.68
			영등포구	46.51	4.82	7.52
관악구	5.70	2.45	동작구	50.29	5.23	7.63
			관악구	45.29	4.83	6.48
강남구	6.24	2.69	서초구	40.45	6.83	6.25
			강남구	39.55	7.35	5.69
			송파구	33.33	6.06	5.75
			강동구	33.88	5.97	5.85
서울전체	6.27	2.65	서울전체	43.90	5.29	7.24
평균값	6.57	2.68	평균값	47.03	5.31	7.51
중간값	6.41	2.66	중간값	46.51	5.11	7.98
표준편차	0.98	0.29	표준편차	11.22	0.69	1.36

주) 2005년 현재 구 체제에 맞게 1975년 구별 자료를 위치시킴. 노인인구비율은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계산함.

자료: 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위해 노령화지수와 장수도(長壽度)의 두 가지 척도를 이용하였다. '노령화지수'는 15세미만 유소년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노년인구의 비율이다. '장수도'는 65세 이상 인구에 대한 8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박삼욱 등, 2005a). 노령화지수는 '총인구에 대한

노령인구비율'과 같은 다소 정태적인 지표에 비해 해당 사회의 인구구조의 전반적이고 역동적인 변화와 인구부양력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지표이며, 장수도는 65세 이상 인구 내에서 보다 구체적인 인구구조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서울시 고령인구의 지역적 차별화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1975년과 2005년 인구자료를 이용하여 각 구별 노령화지수와 장수도를 비교하였다(표 3). 1975년에는 서울시 각 구의 노령화지수와 장수도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2005년에는 각 구별로 차이가 확연히 나타난다.

먼저 노령화지수를 살펴보면, 1975년에는 종로구, 중구, 마포구에서 가장 높고, 서울시 외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미약하게나마 나타난다. 2005년에는 지역적 차별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1975년 0.98에서 2005년 11.22로 대폭 증가했다. 이것은 노령화지수가 6.57에서 47.03으로 7배 정도 증가하는 동안 표준편차는 11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서울시 내에서 구별로 고령화의 지역적 차별화가 심화된 것이다. 노령화지수 60 이상의 도심지역(종로구, 중구, 용산구) 바깥쪽으로 서대문구, 마포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도심인접지역이 노령화지수 50~60을 나타내며, 그 바깥쪽으로 은평구, 도봉구, 중랑구, 성동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등 7개 구가 40~50을 나타낸다. 가장 외곽에 위치한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강동구, 광진구, 송파구 등 9개구가 30~40의 노령화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즉, 도심에 가까울수록 유소년인구에 비해 노년 인구비율이 높은 '고령도시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 30여 년간 도심에서 청·장년 층이 신규전입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많지 않았으므로 상대적으로 유소년인구를 양육하는 청장년 세대의 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다. 도심지역에서 재개발이 부진하면서 곳곳에 주택가격 및 임대료가 낮은 낙후된 주거지역이 유지되었고, 이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계층의 주거지가 되었다. 또한 도심지역은 외곽지역에 비해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이동성이 낮고 대중교통에 많이 의존하는 고령자들이 쉽게 외곽으로 이주하지 않았다. 경제적 조건이 열악한 고령자들일 수록 더욱 접근성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다음으로 장수도의 지역적 변화를 살펴보면, 1975년 구별 장수도는 종로구를 제외하고는 2~3의 값을 가지면서 지역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2005년 장수

도의 지역적 분포는 뚜렷한 차별화를 보이는데, 표준편차가 1975년 0.29에서 2005년 0.69로 2.38배 증가하였다. 노령화지수만큼 급격한 증가는 아니지만, 장수도의 경우에도 지역분포에 있어서 지역적 차별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로 서초구, 송파구와 더불어 강남지역이 높은 장수도를 보인다. 또한 도심지역인 종로구의 장수도도 높게 나타나서, 도심지역과 강남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그 외 지역에서도 일정한 지역적 패턴을 보이는데,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광진구, 강동구 등 외곽지역은 중간수준인 5~6의 장수도를 보이는 반면에, 서대문구, 마포구, 영등포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등 8개 도심인접지역은 3~4의 낮은 장수도를 나타낸다. 이것은 종로구와 중구 등 도심지역을 제외하고는 노인인구 중 8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외곽지역에서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노령화지수와 장수도의 지역적 차별화를 비교해 보기 위해 2005년 자료를 기준으로 지도화 하였다(그림 1). 종로구를 중심으로 한 도심지역은 노령화지수와 장수도에서 모두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대체적으로 노령화지수와 장수도의 분포는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노령화지수는 도심인접지역에 비해 외곽지역이 낮는데 반해, 장수도는 도심인접지역보다 외곽지역이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대조적 분포의 의미는 도심에서 가까운 중간지역은 85세 이상의 초고령자가 살기에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85세 이상의 초고령자는 자녀세대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는데 자녀세대들이 도시외곽의 주거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의 외곽지역에서 나타나는 낮은 노령화지수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장수도는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노령화지수, 장수도, 노인인구비율의 평균(m)±1표준편차(σ)를 기준으로 각 구를 상·중·하의 세 계층으로 분류하였다(표 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령화지수와 장수도, 노인인구비율 모두에서 상위 계층에 속하는 지역은 종로구이며, 노령화지수와 노인인구비율이 상위에 속하는 지역($m+1\sigma$ 이상)은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로 주로 도심지역에 해당된다. 장수도 상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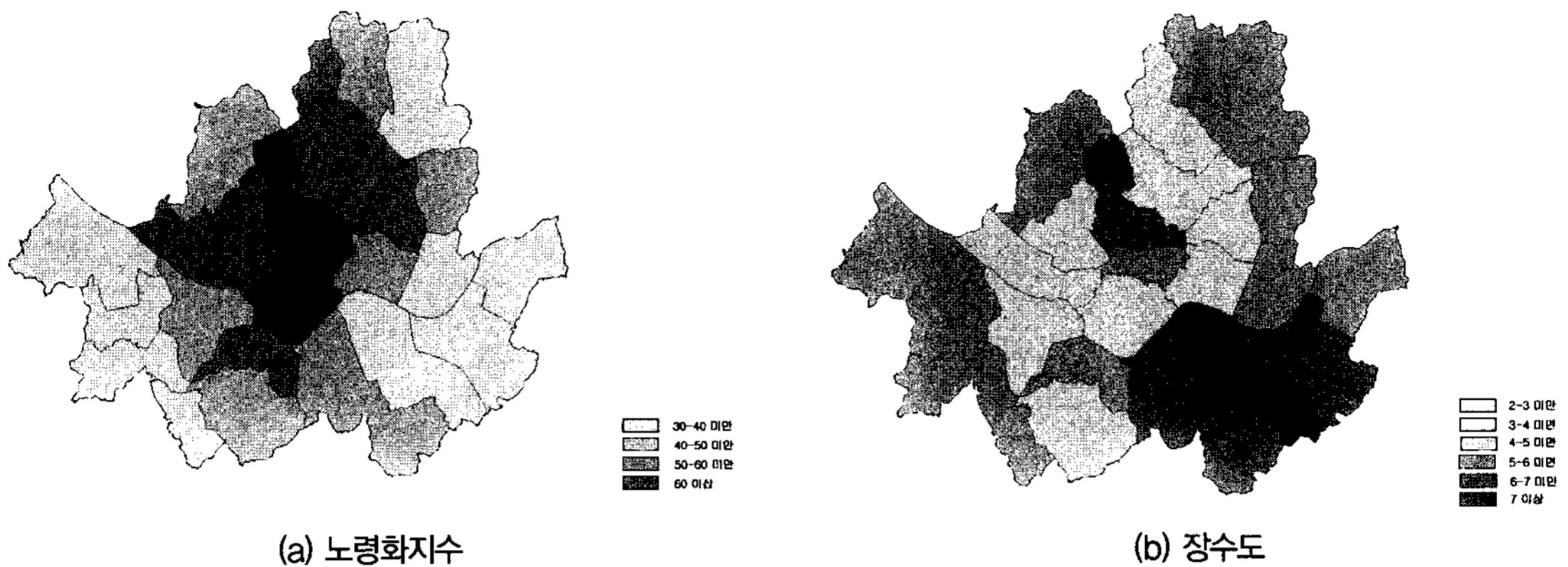


그림 1. 서울시 구별 노령화지수와 장수도 (2005년)

역($m+1\sigma$ 이상)은 역시 종로구와 함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이다. 노령화지수 하위지역($m-1\sigma$ 이하)은 강동구, 송파구, 양천구로 서울시 외곽지역이다. 반면에, 장수도 하위지역($m-1\sigma$ 이하)은 동대문구, 서대문구로 도심인접지역이다.

노령화지수와 장수도를 기준으로 한 구별 계층구분을 토대로 서울의 구 중에서 지역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지역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65세이상 노인인구비율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종로구, 중구, 용산구 등은 노인인구비율이 9% 이상으로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역인 반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은 노인인구비율이 7% 미만으로 아직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지 않은 지역이다. 이렇게 노인인구비율의 대표성을 가지는 [중

로구/중구/용산구]와 [강남구/서초구], 그리고 여기에 서울의 대표적 공업지역인 [구로구/금천구]를 추가하여 고찰하였다. 이들 세 지역은 노령화지수와 장수도에서 특징적 패턴을 보여준다. 서울 동남부 강남지역인 [강남구/서초구]는 다른 구에 비해 노인인구비율은 낮지만, 노령화지수는 중간정도(계층 II)에, 장수도는 높은(계층 I) 지역이다. 서울의 도심지역인 [종로구/중구/용산구]는 노인인구비율이 높고, 노령화지수도 높게 나타나지만(계층 I), 장수도는 중간수준(계층 II)을 나타낸다. 서울 서남부의 [구로구/금천구]는 세 지수 모두에서 중간정도(계층 II)를 나타낸다. 이들 세 지역의 노령화지수와 장수도를 표준화하고 구분하면 지역적 차별화가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그림 2).

표 4. 노령화지수, 장수도, 노인인구비율 표준편차에 따른 서울시 구 계층구분 (2005년)

구분	기준	노령화지수	장수도	노인인구비율
계층 I	$X \geq m+1\sigma$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강남구, 서초구, 종로구, 송파구	종로구, 용산구, 중구, 서대문구
계층 II	$m-1\sigma \leq X < m+1\sigma$	동대문구, 강북구, 성북구, 마포구, 동작구, 은평구, 성동구, 영등포구, 관악구, 도봉구, 중랑구, 서초구, 강남구, 금천구, 구로구, 강서구, 노원구, 광진구	강동구, 강서구, 노원구, 양천구, 동작구, 중랑구, 중구, 도봉구, 은평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강북구, 용산구, 성동구, 관악구, 영등포구, 마포구, 성북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도봉구, 영등포구, 노원구, 중랑구, 금천구, 강서구, 구로구, 관악구, 서초구
계층 III	$X < m-1\sigma$	강동구, 송파구, 양천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광진구, 양천구,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주) X는 각 구별 노령화지수와 장수도의 값을 의미하고, m은 평균, σ 는 표준편차를 의미함. 구는 내림차순에 의해 정렬.

[종로구/중구/용산구]의 노령화지수는 1975년과 비교해서 급격히 높아져서 2005년에는 평균치의 두배에 달하는 반면 장수도는 그다지 높아지지 않았다. 특히, 종로구의 장수도는 1975년 서울에서 가장 높았지만, 2005년에는 [강남구/서초구]에 비해 낮다. 또한 이 지역의 높은 노령화지수는 지난 30여 년간 서울 도심지역이 재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신규 중산층의 유입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강남구/서초구]는 1975년과 달리 2005년 현재 서울에서 장수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반면에 노령화지수는 평균에 머물고 있어, 새로운 인구층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제력 측면에서 중상위 계층의 비율이 높은 지역특성과 함께 1990년대 이후 서울의 새로운 경제중심지로서 젊은층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구로구/금천구]는 1975년 영등포구에 속했던 곳으로 서울에서 노령화지수가 가장 낮은 젊은 지역이었다. 구로구는 1980년 영등포구에서 분리·신설되었고, 이 당시 노령화지수를 계산해보면 5.95로 역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낸다. 이것은 산업 및 고용구조의 특성과 관련된 것인데, 구로공단을 중심으로 1970~1980년대에 대규모의 젊은 노동자들이 인구의 상당부분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 전통적인 노동집약적 공업이 쇠퇴하였고 주거기능 강화와 함께 새로운 산업이 부흥하기 시작한 2005년에 이르러 [구로구/금천구]는 노령화지수, 장수도, 노인인구비율 지표에서 모두 중간계층(계층Ⅱ)에 속하고 있다. 반면 강동구, 송파구, 양천구 등이 노령화지수, 노인인구비율에서 계층Ⅲ에 속하는 젊은 지역으로 부상하였다.

이상에서 서울시 내에서 고령화의 지역적 차별화가 심화되는 현상을 살펴보았다. 인구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인인구비율이 증가하고 노령화지수와 장수도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서울 내에서도 그 양상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고령화 관련 도시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특히 고령자의 취업과 관련한 정책에 있어서도 지역별로 접근 방법을 달리 해야 한다는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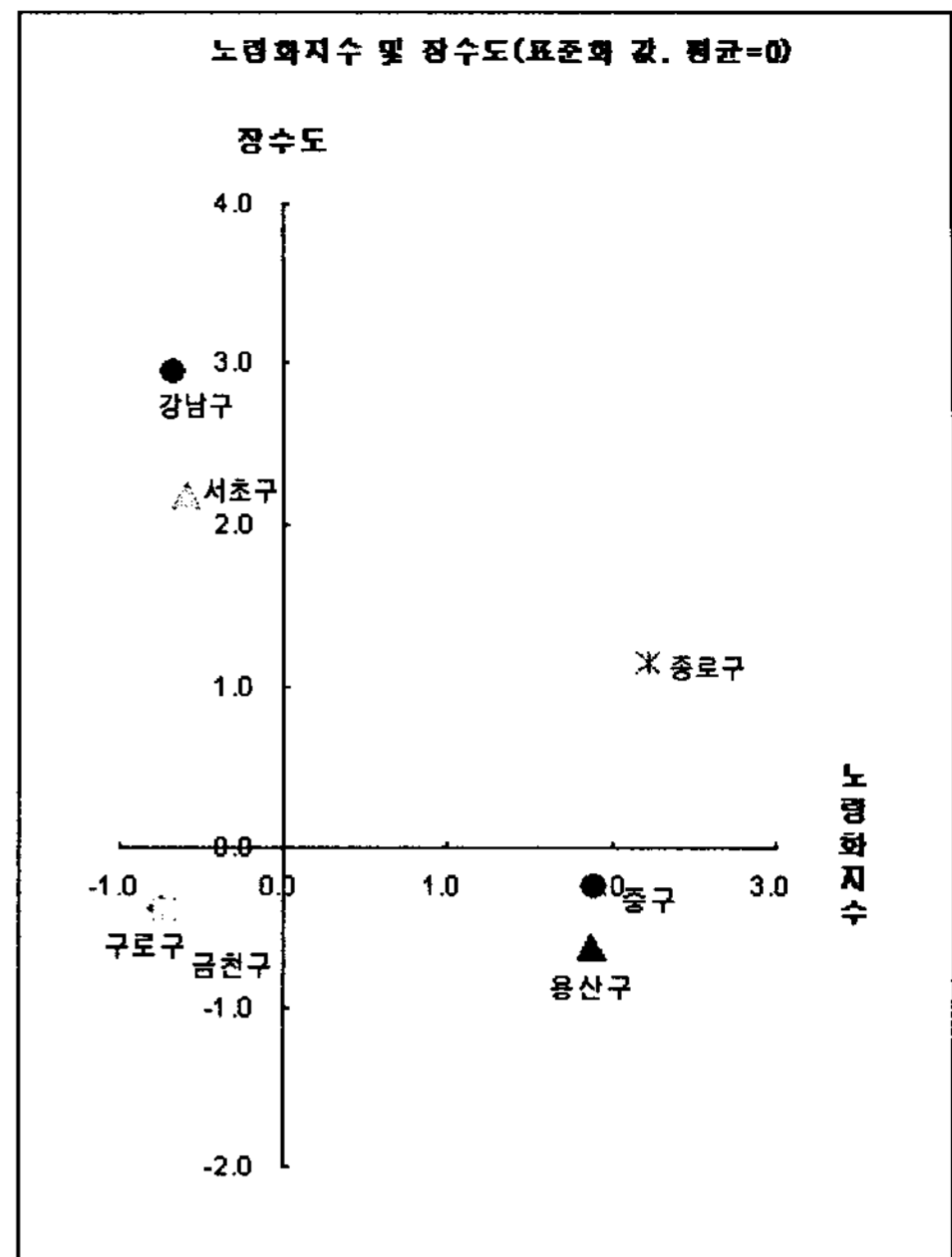


그림 2 서울시 주요 지역의 표준화된 노령화지수 및 장수도

5. 서울 고령자 취업의 지역적 특성

1) 고령자 취업 현황

서울의 고령자 취업상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전국 및 수도권 타 지역의 취업자 비율, 직업분포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표 5). 전국적으로 1980년에서 2005년 사이에 60세 이상 고령자 중 취업자 비율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반면 서울은 1980년 12.8%에서 2005년 19.8%로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여 '일하는 노인들'이 증가하였고, 이것은 경기/인천 지역에 비해서도 높은 것이다. 1980년 이후 전국의 고령 취업자 비율이 30% 전후에서 큰 변화가 없는 이유는 농업부문의 상대적 축소와 타 직업부문에서의 취업확대가 서로 상쇄효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서울 지역에서 늘어난 고령취업자는 어떤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것인지 직업분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2005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직업분포를 살펴보면,

표 5. 60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의 변화추이 (단위: %)

구분	1980년	1990년	2000년	2005년
전국	31.3	28.4	31.9	29.7
서울	12.8	13.6	19.8	19.8
인천	-	14.3	19.2	18.9
경기	25.4	22.3	23.4	22.1

자료: 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서울지역 고용의 상대적 양극화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표 6). 전국과 비교해서 서울은 전문·관리직과 단순노무직 모두에서 전국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나타내어 양극화된 구조를 보인다. 농림어업직의 압도적 비율에 의해 다소 왜곡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서울은 어떤 도시지역보다도 전문·관리직과 단순노무직의 비율이 높다. 15세 이상 전연령대의 직업분포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서울은 전연령대에서 18.0%가 전문·관리직이며 이는 고령자의 비율과 비슷하다. 즉, 서울의 도시기능상 전문·관리직이 집중되어 있고, 고령자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노무직의 경우는 전연령대에서 7.8%인데 비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는 32.4%로 그 차이가 크다. 이렇게 단순노무직에 고령 취업자들이 집중해 있는 것은 서울의 일반적 직업분포와는 다른 고령자 취업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서울지역 고용의 양극화가

고령 취업자에게만 해당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고령자의 고용이 다양한 직종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 부문에 편중된 것은 중요한 현상이다. 특히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임금수준이 낮은 단순노무직에 고용이 집중된 것은 고령자에게 직업선택의 기회가 제약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서울의 고령 취업자의 취업기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령층별 실업률(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실업자의 비율) 지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는 고령자의 취업기회 파악에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를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 조사시점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처리하기 때문에, 고령자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로 처리되는 비율이 높고 따라서 실업률이 낮게 나타나고 고령자 취업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렇게 고령자의 실질적인 취업기회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기 쉽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인구주택 총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고령자의 취업기회를 파악하였다. 표 7의 '취업실패율'은 미취업 고령자 가운데 상당수가 취업을 시도했으나 궁극적으로 취업하지 못한 경험이 있음을 보여준다.¹⁾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취업실패율이 높아지고, 전국에 비해 서울지역의 고령자층의 취업실패율이 특히 높은 것은 고령자들에게 적절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취업하기를 원하는 '잠재적' 경제활동인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서울의

표 6. 65세 이상 고령 취업자의 직업분포

(단위: %)

구분	구분	전문·관리직	서비스직	판매직	농림어업직	단순노무직
전국	전연령	13.5	9.7	11.0	10.6	7.5
	65세 이상	4.0	2.8	6.0	70.0	10.5
서울	전연령	18.0	10.4	13.7	0.3	7.8
	65세 이상	16.3	6.9	14.6	1.7	32.4
인천	전연령	11.4	9.9	11.6	2.4	8.2
	65세 이상	6.3	5.1	10.6	33.6	27.0
경기	전연령	14.5	9.3	10.5	4.5	7.4
	65세 이상	7.2	3.6	6.6	48.5	21.5

주) 전연령은 15세 이상 취업자를 의미하고, 직업대분류항목 중 주요 5개 분류만을 대상으로 작성

자료: 통계청, 2007,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 7. 고령자의 경제활동상태

(단위: 천명)

구분	인구수(A)	취업자(B)	미취업자			취업실패율 C-2/ B+(C-2)	
			구직활동함(C)		구직활동안함(D)		
			취업가능(C-1)	취업실패(C-2)			
전국	전연령(15세 이상)	37,405	19,277	877	1,402	15,840	6.8%
	60~64세	1,890	799	31	73	986	8.4%
	65세 이상	4,367	1,058	24	135	3,150	11.3%
서울	전연령(15세 이상)	8,013	4,003	205	305	3,496	7.1%
	60~64세	402	135	8	18	241	11.6%
	65세 이상	711	85	7	26	593	23.4%

자료: 통계청, 2007,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60~64세 인구에 비해 65세 이상의 취업실패율이 더 높은 것은 많은 고령자들이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고자함을 뜻한다.

2) 고령자 취업관련 구인처 및 구직자 분석

먼저 고령자 취업관련 구인처 분석을 위해, 서울 중앙고령자취업알선센터의 3,784개의 원자료를 구별, 직종별로 분석하였다(표 8). 단순노무직(가사·청소·경비·배달·미화 등) 비율이 82.4%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서울의 65세 이상 고령취업자 중 단순노무직 비율이 32.4%임을 고려할 때, 이 센터를 통한 구인활동은 단순노무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관리직 구인처는 거의 없는데, 이는 전문·관리직에서 고령자 구인경로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교육직의 다수는 어린이집이며, 그 외 예능학원 강사 등이 있다. 교육직, 설문조사원 등 어느 정도의 학력수준을 필요로 하는 직종이나, 노인모델을 찾는 마스크관련직 등은 양적으로 매우 제한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구인처의 구별분포를 살펴보면, 2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있는 지역은 강남구, 동대문구, 서초구, 양천구, 영등포구, 종로구, 중구이다. 이들 지역은 전형적인 주거지역이라기보다는 업무/고용 중심지이거나 양자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

노인들을 많이 고용하는 직종 중에서도 특히 고령자를 선호하는 직종이 있다. 배달직 중에서 노인택배업

종과 치과기공소 배달직이 대표적인 경우이며, 고령자 취업센터를 통해 구인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구에 있는 노인전문택배회사인 S택배사의 경우 직원들의 평균 연령은 65세가 넘으며 최고령자는 86세에 이른다. 본사는 서울 중구에 있으며 강남, 잠실, 영등포, 일산 등지에 지사를 두고 총 100여명의 노인 배달원을 고용하고 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비율은 8:2 정도이고, 수입은 보통 50~60만원 수준이며 많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기도 한다. 직원 대부분이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방송국 국장, 시청 국장, 육군장교 출신 등 고학력과 고위직의 이력을 가진 노인들도 많다. 노인 한명당 하루에 5건 이상의 배달을 하며 회사 전체로 보면 200~300여건의 배달이 이루어진다. 주로 꽃, 선물, 서류 등 크게 무겁지 않은 물건을 배달한다. 종로구, 중구 일대에 노인전문택배회사는 3~4개 정도이며, 서울시 내에 노인배달 인력이 대략 1,000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다. 회사의 입지조건에 대해서는 우선 고령자 노동력이 풍부하고 시장, 회사 등 고객이 많으며 교통이 편리하다는 장점을 꼽고 있다.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들이 주로 고용되며, 학력이 높고 이전에 사회에서 열심히 일했던 노인들이 성실하며 일에 빠르게 적응한다고 한다. 취업알선센터 등 기관을 통해 고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직접 또는 가족들이 연락하여 고용되기도 한다. 강남구의 N치과기공소는 2005년 설립되었으며, 4명의 인력 중 1명이 60대 후반 고령자이

표 8. 구인처 제공 일자리의 구별, 직종별 분포

(단위: 개)

구분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사무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기능원	장치	단순노무직						기타	계	비율 (%)	
		교육	기타	소계								가사	청소	경비	배달	미화	기타				소계
종로구	0	6	2	8	1	12	7	4	0	0	6	7	60	58	38	3	1	167	2	207	5.5
중구	0	6	0	6	0	12	20	1	0	0	3	12	80	55	129	14	9	299	1	342	9.0
용산구	0	5	2	7	1	8	18	2	0	0	2	17	21	69	33	0	0	140	12	190	5.0
성동구	0	67	1	68	1	4	7	0	0	0	6	12	9	15	27	2	0	65	1	152	4.0
광진구	0	0	1	1	0	3	1	0	0	1	0	4	6	34	23	2	1	70	1	77	2.0
동대문구	0	19	1	20	0	1	5	4	0	0	1	9	28	43	53	25	10	168	1	200	5.3
중랑구	0	0	0	0	0	0	1	1	0	0	0	1	11	2	3	0	1	18	0	20	0.5
성북구	0	0	0	0	0	3	4	0	0	0	0	14	5	7	5	0	1	32	0	39	1.0
강북구	0	2	0	2	0	0	2	3	0	0	0	2	7	9	0	1	0	19	1	27	0.7
도봉구	0	0	1	1	0	1	1	3	0	0	0	2	32	5	0	4	0	43	0	49	1.3
노원구	0	4	1	5	3	1	2	0	0	1	2	7	55	70	16	2	1	151	1	166	4.4
은평구	0	0	0	0	0	1	1	0	0	0	0	6	3	12	8	0	0	29	1	32	0.8
서대문구	0	2	0	2	1	3	12	0	0	1	1	5	45	38	12	0	2	102	3	125	3.3
마포구	0	3	2	5	0	1	5	5	0	0	4	3	12	43	22	7	2	89	1	110	2.9
양천구	0	7	0	7	0	7	39	10	0	4	2	39	21	131	18	13	2	224	1	294	7.8
강서구	0	5	1	6	0	0	8	4	0	1	2	20	20	55	3	1	1	100	1	122	3.2
구로구	0	5	1	6	0	3	10	9	0	2	7	9	11	42	20	15	9	106	0	143	3.8
금천구	0	0	1	1	1	2	1	0	0	0	1	0	9	34	1	1	1	46	0	52	1.4
영등포구	0	1	3	4	2	9	5	1	0	4	1	4	46	148	69	13	6	286	3	315	8.3
동작구	0	1	0	1	3	0	6	0	0	0	1	8	28	48	28	9	2	123	1	135	3.6
관악구	0	0	0	0	5	2	10	0	0	0	1	3	12	26	25	10	0	76	0	94	2.5
서초구	0	6	1	7	1	5	11	6	0	0	1	28	52	97	18	16	3	214	11	256	6.8
강남구	0	6	1	7	0	11	15	7	0	0	3	28	91	172	25	30	5	351	2	396	10.5
송파구	0	0	0	0	0	0	4	0	0	0	0	6	20	46	5	4	0	81	2	87	2.3
강동구	0	3	0	3	0	0	1	0	0	0	2	6	9	13	18	0	2	48	0	54	1.4
기타	0	7	8	15	0	2	4	2	0	0	1	6	16	35	2	9	4	72	4	100	2.6
계	0	155	27	182	19	91	200	62	0	14	47	258	709	1,307	601	181	63	3,119	50	3,784	100.0
비율(%)	0	4.1	0.7	4.8	0.5	2.4	5.3	1.6	0	0.4	1.2	6.8	18.7	34.5	15.9	4.8	1.7	82.4	1.3	100.0	

주) 전체 구인행위의 구별 직종 분포를 나타내는 것으로, 구체적인 직업을 일반적인 직종분류체계로 바꾸었음
 자료: 서울 중앙고령자취업알선센터 내부자료(2005년 기준)를 이용하여 연구자 작성

다. 임시직으로 일하면서, 월급은 40~50만원 정도이고 교통비 10~20만원을 따로 지급한다. 현재 고령자의 교통비가 무료인 것을 감안해 볼 때, 고령자의 임금은 보통 60~70만원, 많게는 80만원까지 지급된다. 구인처의 입장에서 고령자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직률이 매우 낮다는 점인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고령자 배달원이 이 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해 오고 있

다고 한다. 보통 치과기공소에서 배달하는 인력은 고령근로자가 많으며 이 중 고학력자나 사업운영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많다. 가족들과 함께 사는 고령인이 많으며 독거노인의 비중은 적다. 큰 치과기공소의 경우에는 11~12명 정도 고용하고 있으며, 평균 1~2명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한다. 구청과 연계된 노인인력개발센터에 연락하여 인력을 소개받으며, 근무자

표 9. 구직자의 연령별 분포

연령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계
수(명)	854	1,510	1,632	619	114	27	4,756
비율(%)	18.0	31.7	34.3	13.0	2.4	0.6	100.0

자료: 서울 중앙고령자취업알선센터 내부자료(2005년 기준)를 이용하여 연구자 작성

표 10. 강남지역 고령 구직자의 학력별 분포

구분	고졸 미만		고졸		전문대졸/대퇴		대졸 이상		계(명)
	수(명)	비율(%)	수(명)	비율(%)	수(명)	비율(%)	수(명)	비율(%)	
강남구	44	35.8	40	32.5	1	0.8	38	30.9	123
서초구	53	30.5	64	36.8	3	1.7	54	31.0	174
송파구	22	30.6	28	38.9	1	1.4	21	29.2	72
서울 전체	2,370	49.8	1,619	34.0	151	3.2	616	13.0	4,756

자료: 서울 중앙고령자취업알선센터 내부자료(2005년 기준)를 이용하여 연구자 작성

의 친인척 및 아는 사람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고용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서울 중앙고령자취업알선센터의 총 4,756명의 구직자 자료를 대상으로 구직자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인처 분석에서 단순노무직 비율이 82.4%였던 것에 비해, 구직자 분석에서는 78.0%가 단순직을 희망하고 있다. 경비관리직, 청소/세탁직 등의 구직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단순직을 제외한 직종의 비중은 크지 않지만 일부 구를 중심으로 교육, 기계장비 등 전문분야의 구직자들이 소수 존재한다. 구직자의 연령분포를 보면 60~69세가 66.0%로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70~79세가 15.4%로 나타난다(표 9). 구직자의 학력별 분포를 분석하면 50.2%인 절반 정도가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구별로 살펴보면 지역적 차별화가 나타나는데 소득 수준이 높은 강남지역 [강남구/서초구]의 경우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으로 서울 전체 평균 13.0%에 비해 확연하게 높게 나타난다(표 10). 강남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들은 10% 전후의 대졸자 비율을 나타낸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구인처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의 직종별 구성비는 구별로 큰 차이가 없다. 서울시 전체 단순노무직 비율은 82.4%이며, 강

남구 88.6%, 서초구 83.6%, 송파구 93.1% 등으로 평균과 근사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수치이다. 따라서, 고령자들을 위한 일자리는 학력수준과 무관하게 단순직 중심이며, 위 세 지역의 경우에는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부조응(mismatch)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에 앞에서 살펴본 구인처와 구직자의 구별 분포를 비교하여,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이 지리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고찰하였다(표 11). 구인처(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은 구는 강남구, 서초구, 영등포구, 중구, 양천구(서울시 전체 구인처의 6% 이상인 구)이다. 반면에, 구직자는 노원구, 관악구, 강서구, 은평구(서울시 전체 구직자의 6% 이상인 구) 등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주거 밀집지역이 있는 구에서 높게 나타난다. 즉, 해당지역에는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 일자리를 구해야만 하는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고령자취업알선센터를 통한 구직행위가 적극적인 구직행위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해당 지역의 고령자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다른 지역보다 더 큰 어려움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인처가 제공하는 일자리에 대한 구직자의 비율을 보면, 일자리의 지역별 편중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고령자취업알선센터의 자료에

표 11. 구직자와 구인처의 구별 분포

구분	구직자		구인처		구직자/구인처 지수
	수(명)	서울전체 구직자에 대한 비율(%)	수(개)	서울전체 구인처에 대한 비율(%)	
종로구	96	2.02	207	5.47	0.46
중구	109	2.29	342	9.04	0.32
용산구	180	3.78	190	5.02	0.95
성동구	193	4.06	152	4.02	1.27
광진구	81	1.70	77	2.03	1.05
동대문구	223	4.69	200	5.29	1.12
중랑구	101	2.12	20	0.53	5.05
성북구	220	4.63	39	1.03	5.64
강북구	153	3.22	27	0.71	5.67
도봉구	135	2.84	49	1.29	2.76
노원구	447	9.40	166	4.39	2.69
은평구	300	6.31	32	0.85	9.38
서대문구	270	5.68	125	3.30	2.16
마포구	145	3.05	110	2.91	1.32
양천구	280	5.89	294	7.77	0.95
강서구	367	7.72	122	3.22	3.01
구로구	204	4.29	143	3.78	1.43
금천구	83	1.75	52	1.37	1.60
영등포구	201	4.23	315	8.32	0.64
동작구	169	3.55	135	3.57	1.25
관악구	329	6.92	94	2.48	3.50
서초구	174	3.66	256	6.77	0.68
강남구	123	2.59	396	10.47	0.31
송파구	72	1.51	87	2.30	0.83
강동구	50	1.05	54	1.43	0.93
기타	51	1.07	100	2.64	0.51
계	4,756	100.00	3,784	100.00	1.26

자료: 서울 중앙고령자취업알선센터 내부자료(2005년 기준)를 이용하여 연구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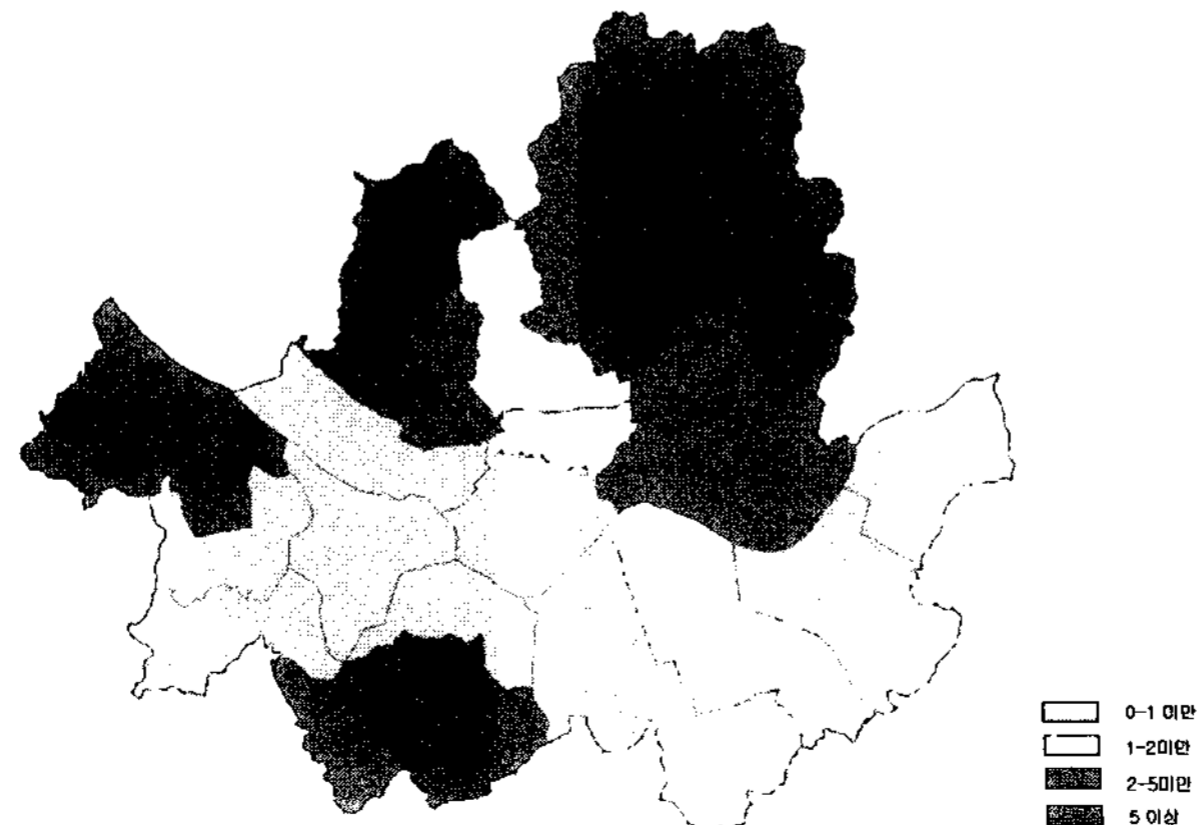


그림 3. 구인처에 대한 구직자의 비율(구직자/구인처) 분포

따르면 서울 전체에서 일자리에 대한 구직자 비율은 1.26이다. 지수가 5를 넘는 지역은 강북구,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로 대부분 강북의 주거지역으로 고용이 많지 않고,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역이다. 앞의 인구고령화에서 살펴본 지역과 비교하면, [종로구/중구/용산구], [강남구/서초구]는 구직자/구인처 지수가 1 이하로 낮은 계층에 속하는 반면, [구로구/금천구]는 1 이상으로 중간 계층에 속한다.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구직자/구인처’ 지수는 서울 내에서 취업기회가 지리적으로 얼마나 차별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림 3).

3) 고령 취업자 특성 분석

고령 취업자는 고령자취업알선센터의 3,688명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이 자료를 기준으로 구직자에 대한 취업자의 비율은 7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센터를 통한 취업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인처와 구직자 분석과 마찬가지로 취업자의 직종 역시 단순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가사관련직의 경우 고소득 지역 및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취업자 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직의 경우 건물 청소원이 대부분이나 서초구와 같이 주차장에서도 고령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관리 및 경비직의 경우 아파트 및 건물 경비가 주를 이루며 주차장 관리원도 일정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업의 경우 보모, 간병인, 식당 종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단순직과 큰 차이가 없다. 전문직의 경우 교육, 비교육업종 모두 구직자에 비해 취업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학력별 취업자 비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구직자에 비해 취업자에서 고학력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아 고학력의 인력이 보다 용이하게 일자리를 구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 12).

한편, 앞서 살펴본 구인처 및 구직자와 취업자 자료를 토대로 고령자 일자리의 직종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13). 그 특성을 살펴보면 구인처와 구직자에 비해 취업자의 전문직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취업자의 전문직 비율이 14.9%인 것에 비해, 구직자는 2.8%, 구인처(일자리)는 4.9%로 낮다. 이 중 상당수는 교육관련

표 12. 구직자와 취업자의 학력별 분포

구직자		취업자	
고졸이하	전문대졸이상	고졸이하	전문대졸 이상
3,989명	767명	2,902명	786명
83.9%	16.1%	78.7%	21.3%

자료: 서울 중앙고령자취업알선센터 내부자료(2005년 기준)를 이용하여 연구자 작성

직에 해당된다. 취업자 중 전문직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고소득직종은 많지 않으며, 특히 교육관련직의 경우 어린이집, 학원, 유치원 등지에서 고령자를 구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이지만 이직율이 낮고 직무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인터뷰에 따르면, 교육직의 경우 고령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나 복지재단 등에 신청하여 고령자를 지원받는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 이는 어린이집이 사설 유치원과는 달리 국가지원으로 운영되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종로구의 K어린이집의 사례를 살펴보면, 2명의 고령자가 일을 하고 있으며 74세의 할머니(고졸)는 아이들에게 한자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마다 30분씩 2타임(1:30~2:30)의 한자교육을 한다. 이 할머니는 삼성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종로시니어 클럽에서 지원을 받고 있으며, K어린이집 이외에도 다른 곳에서 교육교사 활동을 하고 있다.

취업자 비중에 비해 구직자와 구인처에서 전문직 비율이 낮은 것은, 사회적인 수요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구인·구직행위가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이는 고령자취업알선센터가 고학력·전문직 경력의 노인들과 전문직 일자리 수요를 갖고 있는 구인처를 위한 취업알선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즉, 전문직의 고령구직자들은 다른 경로로 구직행위를 하거나, 적절한 구직경로를 찾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고령자에게 적합한 전문직 또는 준전문직 일자리를 창출하고, 적절한 구직 경로를 구축한다면 고령자의 취업 양상이 더욱 다양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에 단순노무직의 경우, 구인처의 83.2%, 구직자

의 78.7%, 취업자의 69.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비율의 차이는 단순노무직에 편중된 구인처(일자리)에 비해, 구직자는 이보다는 다양한 직종에서 일자리를 찾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 취업으로 연결되는 확률이 다른 직종에 비해 낮음을 의미한다. 단순노무직의 대표적인 업종인 관리·경비직과 배달직에서 상이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관리·경비직의 경우 구직자의 42.4%가 선호하는 대표적인 직종이지만, 취업자의 26.5%만이 이에 해당한다. 그만큼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관리·경비직은 대체로 주차장관리나 아파트단지 경비직등 타 단순노무직에 비해 육체적으로 편안한 조건에 있기 때문에 선호되며 경쟁이 치열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배달직은 구직자의 10.1%만을 차지하고 있지만, 취업자의 16.4%를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취업이 용이한 분야인데, 노인택배회사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근로여건이 열악한 편이고 경제적인 보상도 좋은 편이 아니어서 구직자의 입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기는 쉬운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 강남구의 S안전시스템은 청소직과 경비직 등 단순노무직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으로 전체 고용인력의 80~90%가 고령자이다. 대부분 정규직으로 급여는 교통비를 포함해서 80~120만원이라고 한다. 이 기업은 고령자를 고용하는 이유로 낮은 이직률과 비용절감, 고용시간과 노동공급의 유연성을 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저임금이라고 한다. 고용되면 보통 1~3년간 재직하며 이직률은 20~30% 정도이지만, 젊은 연령층에 비해 상대

적으로 이직률이 낮은 편이다.

취업자가 어떤 곳에서 직장을 구하는가를 알기 위해 O/D행렬 분석을 해 본 결과 (표 14), 전체적으로 구내통근이 40.2%, 다른 구로의 통근이 54.4%, 서울시 이외지역으로의 통근이 5.3%를 차지하고 있다. 구내통근율이 50%가 넘는 지역은 강서구를 비롯한 7개 구인데, 노원구, 성동구, 양천구 등 서울 외곽의 주거지역과 구로구, 영등포구, 용산구 등 서울 서남부 지역이다. 인구고령화에서 특징적 특성을 보인 [강남구/서초구]는 송파구와 더불어 기타 지역과 차별화된 이동행태를 보인다. 여기에서는 구내에서의 통근비율도 상당한 수준이고, 서로간의 이동비율도 높다. 예를 들어, 강남구 고령자의 경우 강남구 내에서 통근하는 경우 (31.3%), 서초구나 송파구로 통근하는 비율(24.2%)이 높으며 또한 서울 외부(서울제외 수도권)로 통근하는 비율(32.3%)도 높다. 시외통근율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10%에 훨씬 못 미치지만, 강남구(32.3%)와 함께, 서초구(24.7%), 송파구(16.2%)만이 높은 정도를 나타낸다. [강남구/서초구]는 통근거리가 짧은 고령자 집단과 긴 고령자 집단이 동시에 존재하는 셈인데, 이는 이 지역에 취업기회가 많다는 점과 공간제약을 비교적 쉽게 극복하여 먼 곳에 취업하는 고령자 또한 상당히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근무지로서 강남구는 서울시 전 지역으로부터의 통근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각 구별로 거주자에 대한 근무자 비율을 살펴보면, 수치가 1 이상인 구(거주자<근무자)는 강남구, 서초구,

표 13. 취업자·구직자·구인처의 직종별 분포

구분	관 리 자	전문가			기술 종	사무	서 비 스	판매	농림 어업	기 타 종	장 치	단순노무직						기타	계		
		교육	기타	소계								가사	청소	경비	배달	미화	기타			소계	
취 업 자	수(명)	0	355	197	552	19	120	215	114	0	25	27	206	510	976	605	150	122	2,569	47	3,688
	비율(%)	0.0	9.6	5.3	14.9	0.5	3.3	5.8	3.1	0.0	0.7	0.7	5.6	13.8	26.5	16.4	4.1	3.3	69.7	1.3	100.0
구 직 자	수(명)	0	91	42	133	52	96	313	52	1	32	117	228	780	2,016	480	149	91	3,744	216	4,756
	비율(%)	0.0	1.9	0.9	2.8	1.1	2.0	6.6	1.1	0.0	0.7	2.5	4.8	16.4	42.4	10.1	3.1	1.9	78.7	4.5	100.0
구 인 처	수(개)	0	155	27	182	19	91	200	62	0	14	47	258	709	1,307	601	181	63	3,119	50	3,784
	비율(%)	0.0	4.3	0.7	4.9	0.5	2.4	5.3	1.6	0.0	0.4	1.2	6.8	18.7	34.5	15.9	4.8	1.7	83.2	1.3	100.0

자료: 서울 중앙고령자취업알선센터 내부자료(2005년 기준)를 이용하여 연구자 작성

성동구, 종로구, 중구 등으로 실제로 취업가능한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지역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강북구, 관악구, 금천구, 도봉구,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는 0.5 이하로 나타나는데,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가 상대적 부족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서울의 각 구를 통근상태에 따라 유형화하면 (표 15), 앞서 살펴보았던 서울의 각 구별 특성이 취업기회와 통근상태에도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강남지역과 종로구, 중구의 도심지역은 취업기회가 많은 유형에 해당된다.

시외통근율에 따라 강남지역은 고령자의 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시외통근율이 높은 유형 I, 도심지역은 반대로 제한된 이동성으로 시외통근율이 낮은 유형 II에 해당된다. 취업기회가 중간정도인 유형 III의 지역은 구내통근율이 높고 구외 및 시외통근율이 낮은 곳으로 강서구, 구로구, 노원구 등이 해당된다. 취업기회가 낮은 유형 IV는 일자리가 적기 때문에 구내통근율이 낮고 구외통근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제한된 이동성으로 인해 시외통근율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4. 취업자의 구내·구외·시외 통근자 비교

구분	거주자(명)	근무자(명)	근무자/ 거주자	구내통근자		구외통근자		시외통근자	
				수(명)	비율(%)	수(명)	비율(%)	수(명)	비율(%)
종로구	113	166	1.47	39	34.5	73	64.6	1	0.9
중구	191	217	1.14	81	42.4	108	56.5	2	1.0
용산구	116	112	0.97	60	51.7	54	46.6	2	1.7
성동구	148	203	1.37	83	56.1	63	42.6	2	1.4
광진구	66	35	0.53	10	15.2	56	84.8	0	0.0
동대문구	184	158	0.86	81	44.0	95	51.6	8	4.3
중랑구	60	12	0.20	3	5.0	56	93.3	1	1.7
성북구	104	30	0.29	2	1.9	99	95.2	3	2.9
강북구	59	13	0.22	1	1.7	58	98.3	0	0.0
도봉구	46	17	0.37	1	2.2	44	95.7	1	2.2
노원구	236	228	0.97	148	62.7	87	36.9	1	0.4
은평구	146	28	0.19	23	15.8	110	75.3	13	8.9
서대문구	121	89	0.74	39	32.2	72	59.5	10	8.3
마포구	75	55	0.73	8	10.7	66	88.0	1	1.3
양천구	320	298	0.93	227	70.9	81	25.3	12	3.8
강서구	309	304	0.98	239	77.3	57	18.4	13	4.2
구로구	235	191	0.81	136	57.9	85	36.2	14	6.0
금천구	63	30	0.48	5	7.9	57	90.5	1	1.6
영등포구	231	199	0.86	122	52.8	106	45.9	3	1.3
동작구	150	90	0.60	23	15.3	123	82.0	4	2.7
관악구	278	85	0.31	48	17.3	227	81.7	3	1.1
서초구	186	248	1.33	62	33.3	78	41.9	46	24.7
강남구	99	301	3.04	31	31.3	36	36.4	32	32.3
송파구	68	39	0.57	7	10.3	50	73.5	11	16.2
강동구	34	28	0.82	5	14.7	29	85.3	0	0.0
수도권(서울제외)	50	197	3.94		0.0	37	74.0	13	26.0
근무지부재		315							
계	3,688	3,688		1,484	40.2	2,007	54.4	197	5.3

자료: 서울 중앙고령자취업알선센터 내부자료(2005년 기준)를 이용하여 연구자 작성

표 15. 취업기회와 통근상태에 따른 지역의 유형분류

	취업기회	구내통근율	구외통근율	시외통근율	해당지역
유형 I	많다	중간	중간	높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유형 II	많다	중간	중간	낮다	종로구, 중구
유형 III	중간	높다	낮다	낮다	강서구, 구로구, 노원구, 성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유형 IV	낮다	낮다	높다	낮다	강동구, 강북구, 관악구, 광진구, 금천구, 도봉구 등

6. 결론

본 연구는 서울의 인구 고령화 특성을 살펴보고 고령자 고용의 구조와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30여 년간 서울의 인구고령화현상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특히, 서울은 수도권에서 경기나 인천에 비해 노령화지수의 증가속도가 빨랐다. 현재 서울은 비교적 '늙은 도시'로 변해가는 과정에 있다. 둘째, 노령화지수와 장수도의 변화를 볼 때, 지난 30여 년간 서울 내에서 지역적 차별화가 나타났다. 그 결과, 노령화지수는 도심지역에서 가장 높은 반면에, 장수도는 강남지역에서 가장 높았다. [종로구/중구/용산구]는 서울의 도심지역으로 노인인구비율과 노령화지수가 높은(계층 I) 인구고령화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지역이다. 반면 고령자의 구직자/구인처 지수는 낮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도심지역의 영향으로 일자리가 비교적 많이 제공되기 때문이고, 이에 취업기회와 통근상태에 따른 유형분류에서 유형 II에 해당되어 취업기회가 많다. 강남지역인 [강남구/서초구]는 노인인구비율이 낮고(계층 III), 노령화지수는 중간정도(계층 II)에 속하는 비교적 젊은 지역이다. 반면에 장수도는 가장 높은 계층 I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구직자/구인처 지수는 도심지역과 같이 낮게 나타나는데 이 지역 역시 일자리가 비교적 많이 제공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 지역 고령자의 이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외통근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유형 I)이 특징적이다. 셋째, 서울 고령자의 취업 분포는 뚜렷하게 양극화되어 있다. 서울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단순노무직 종사비율은 32.4%로

전국평균 및 경기·인천에 비해서도 훨씬 높다. 넷째, 서울 내에서 고용의 지역적 차별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비록 특정 직종에 제한될지라도 고용기회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고용중심지와 고용기회가 적은 외곽주거지역으로 양분된다. 이와 관련해서 고령자취업알선센터의 자료 분석결과, 구인처와 구직자간에 지리적 부조응이 나타났다. 이는 고령구직자가 자신의 주거지 주위에서 적절한 일자리를 얻기 힘들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노인의 제한된 이동성을 고려할 때, 개선이 필요한 측면이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의하여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화현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도시지역의 고령화현상에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하여 대응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의 고령화는 젊은층 중심의 인구이입에 의해 완화된 측면이 있어왔다. 이러한 이촌향도 현상이 촌락지역의 고령화 내지는 초고령화 현상을 초래했음은 잘 알려진 바다. 만약 수도권(서울)으로의 인구이동이 약화된다면, 수도권(서울)지역의 고령화추세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 따라서 서울의 고령화경향, 인구이동의 추세, 서울의 산업구조 및 사회구조의 변화간의 관계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망을 수립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고령화현상은 서울 내에서도 지역적으로 차별화되었으며, 이는 서울 내에서 특정한 고용중심지의 형성, 성장, 쇠퇴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발전시켜 고령화현상의 지역적 특성과 그 지역의 고용구조특성간의 일반적 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고령화 및 고령자 취업정책을 도시 및 지역정책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인구고령화에 대한 많

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지역적 현상으로서의 고령화에 대한 접근은 이제 시작단계라고 볼 수 있다. 고령화 현상은 필연적으로 지리적 현상이며, 지리학의 전통적 연구주제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생각할 때 이는 때늦은 감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고용측면 뿐만 아니라, 산업·복지·주거·여가·교통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영역에서 인구고령화가 지역사회의 특성과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축적하여 이를 인문지리학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시사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화현상 및 고령고용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거시적인 고용정책과 함께 미시적인 지역차원에서의 취업관련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특히, 지리적인 이동성이 약하고 많은 경우에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취업하기 원하는 고령자들의 특성상 구별 내지는 그에 준하는 지리적 스케일에서 구인과 구직이 최대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취업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구내통근율이 낮은 강동구, 강북구, 관악구, 광진구, 금천구, 도봉구 등 서울의 외곽지역(표 15의 유형 IV)에 대해 고령층을 위한 고용창출 및 취업알선정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지역들은 전통적으로 일자리가 많은 고용중심지가 아니라 주거지역의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사적부문(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알선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육아, 장애인 보호서비스, 다양한 영역에서의 공공근로/서비스 등 지역사회차원에서 공공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확대 등 보다 근본적인 고용창출대책과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고령자의 취업알선 대상 직종을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취업알선센터의 자료 및 기초통계자료에 의한 고령취업자의 다수는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며 가사·배달·청소·경비직 등 몇몇 직종에 편중되어 있다. 이는 특정 직종을 제외한 다수직종의 취업기회가 고령자에게 제약되어 있음을 뜻한다. 또한 전문적인 경력과 기술을 갖고 있는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취업경로를 개발하고 이를 지역사회의 시스템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註

- 1) <인구주택총조사>의 성/경제활동/연령별 고령자통계는 전체고령자를 취업자와 미취업자로 나누고, 미취업자를 다시 구직활동을 한 경우와 안한 경우로 나누고 있다. 또한 '일 자리를 찾아보았으나 취업하지 않은 사람'을 다시 취업이 가능했던 사람과 취업이 가능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나눈다. 취업가능과 취업실패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각각 '일할 수 있었음', '일할 수 없었음'으로 표시된 항목이다. 전자는 일할 수 있었으나 취업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므로 자발적 미취업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며, 후자(일할 수 없었음) 중에서도 일할 수 없었던 이유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구직활동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했느냐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중 상당부분 역시 공식적인 실업률 통계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미취업자 중에서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취업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취업실패자(실업자)'로 가정하고 '취업실패자' / '취업자+취업실패자'를 취업실패율로 칭한다. 이 경우, 구직활동의 적극성 여부에 대해 엄격하게 접근하는 실업자 통계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여주지만, 고령자 취업상태에 대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실업률보다 유력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文獻

- 강신욱, 2005, "고령화사회에 대응한 인적자원개발 방향," 직업과 인력개발, 여름호, 4-15.
- 김승용, 2005, "도시노인인구의 인력재활용방안," 도시문제, 5월호, 36-48.
- 김현진, 2004, "고령화의 사회·정치적 영향: 한국과 일본의 경우," 사회연구, 1, 81-97.
- 노병일, 2004, "노인근로자를 위한 고용친화적 제도," 사회과학논문집(대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2(2), 173-194.
- 박삼옥 · 박상철 · 최성재 · 이정재 · 한경혜 · 이미숙 · 곽충실 · 송경언 · 정은진, 2007, 한국의 장수인과 장수지역: 변화와 대응, 서울대학교출판부, 서울.
- 박삼옥 · 정은진 · 송경언, 2005a, "한국 장수도(長壽度) 변화의 공간적 특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1(2), 187-210.
- 박삼옥 · 송경언 · 정은진, 2005b, "호남 장수지역의 산업연계와 혁신 네트워크," 대한지리학회지, 40(1),

- 78-95.
- 방하남 · 신동균 · 김동현 · 신현구, 2004,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변화와 노동정책의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변재관, 1999, “노인인력활용의 활성화방안,” 21세기의 생산적 노인복지방향, 서울시, 노인복지 워크샵 자료집, 한국노인복지학회.
- 서균석, 2007, “고령사회를 대비한 고령자 고용촉진방안,” *인적자원관리연구*, 14(2), 61-76.
- 송경언 · 박삼욱 · 정은진, 2006, “강원 · 제주 장수지역에 있어 서비스기능의 생산연계와 혁신네트워크: 호남 장수지역과의 비교,” *한국경제지리학회지*, 9(1), 97-122.
- 신동면 · 양기근, 2003, “고령화사회의 노인고용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23(3), 111-128.
- 이승협, 2006, “고령사회의 노인소득보장에 관한 연구: 지역노동시장 실태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7, 201-223.
- 임춘식, 2003, “고령화 사회의 노인인력 활용정책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2(겨울호), 55-77.
- 장지연, 2004, “고령인력의 활용과 노동시장정책,” *사회연구*, 1, 99-112.
- 장지연, 2005,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정책,” *직업과 인력개발*, 여름호, 16-27.
- 정은진 · 박삼욱 · 송경언, 2006, “강원 · 제주 장수지역의 제조업 생산연계와 혁신네트워크의 공간적 특성,” *대한지리학회지*, 41(1), 1-21.
- 지광수, 2005,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정책,” *산업경제연구*, 18(4), 1823-1836.
- 폴 윌리스(유재천 역), 2001, *증가하는 고령인구 다시 그리는 경제지도*, 시유시, 서울.
- OECD, 2004,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Korea*, OECD, Paris.
- 교신: 진중현, 122-706,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1동 613-2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이메일: jhjin@kei.re.kr, 전화: 02-380-7743)
- Correspondence: Jong Heon Jin, Sustainable Development Research Policy Group, Korea Environment Institute, 613-2 Bulqwang-dong, Eunpyeong-gu, Seoul, 122-706, Korea (e-mail: jhjin@kei.re.kr, phone: +82-2-380-7743)

최초투고일 08. 03. 19

최종접수일 08. 06. 04